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543
----------	------

발의연월일 : 2024. 9. 2.

발 의 자 : 한지아 · 서범수 · 이인선  
진종오 · 장동혁 · 박정하  
조은희 · 김형동 · 김승수  
정성국 · 우재준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하거나 고용해 이득을 취득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만, 이러한 경우에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하여 그 행위자에게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한 사정이 인정되면 과징금을 부과·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는 면책 규정이 마련돼 있음.

그런데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이러한 면책 규정이 없어 과징금 부과처분의 형평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숙박업자 등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과징금 부과를 면제할 수 있는 근

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3항).

법률 제 호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54조제3항 중 “제58조제1호·제3호·제4호”를 “제58조제1호·제3호·제4호, 같은 조 제5호(제30조제8호를 위반하는 행위에 한정한다)”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의 영업행위에 대한 과징금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당시 과징금 부과·징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4조(과징금) ①·② (생략)	제54조(과징금)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u>제58조제1호·제3호·제4호</u> 또는 제59조제6호·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하여 그 행위자로 하여금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한 사정 또는 행위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하게 한 사정이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58조제1호·제3호·제4호, 같은조 제5호(제30조제8호를 위반하는 행위에 한정한다)----- ----- ----- ----- ----- ----- ----- ----- ----- ----- -----.
④ ~ ⑦ (생략)	④ ~ ⑦ (현행과 같음)